

2017 신년 인터뷰

“수영대회 성공 개최 힘 보태겠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4일 “선순환적인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에 귀속된 예산과 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은 물론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올해 대선 정국 속에서 지방정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등 광주시의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 의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미래 광주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군공한 이전 추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와 옛 전남도청 별관 복원 등을 위해서도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부와 관계에 대해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소통하고 협력할 때 시민들은 안심하고, 시정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인사정책 개선 주력

집행부와 소통·협력 강화

청년 일자리창출 등 총력

지역 현안 토론회 활성화

이와함께 이 의장은 시의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 행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한 해 예산규모가 6조원에 이르면

서 의정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면서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당면한 지역현안은 정책토론회와 정책네트워크 등을 활발히 운영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비리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의원들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134회의 회기에 284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의원발의 조례가 81건일 정도로 활발하게 입법활동도 했다”면서 “특히 7대 후반기 의회가 12년 만에 양당체제로 평화롭게 자리를 잡는 등 지역정가에 새바람을 일으켰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의장은 아쉬운 점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12년 만의 양당체제에 따라 선거일정이 다소 늦어져 일부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올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곧이어 대선이 치러지는 등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협의와 합의 협치에 주안점을 뒀 실용적인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에너지밸리·조선산업 지원 협력”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올해도 전남도의회는 청렴에 바탕을 두고 ‘강한 의회’, 도민들이 공감하는 생활 속의 의정활동을 펴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임명규(60) 의장은 4일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답을 동시에 구하는 생활정치 중심의 의회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도의회 목표를 ‘지역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정한 뒤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소외계층 등 복지증진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원 조례 등 지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道) 자치법규 은행(Bank)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 도민실’ 운영도 내실을 다지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고령화 및 낙후한 지역경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쌀값 하락,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 등 지역현안사업도 알뜰히 살피겠다는 게 임 의장의 생각이다. 또 각종 현안사업은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전남도 올해 최대현안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산업인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역민과 소통하는 의회

농어업인·소외계층 지원

‘열린 도민실’ 의견 수렴

유급보좌관계 도입 실현

“여기에 전남의 주요 기반산업인 농축수산업은 FTA 체결과 기후변화로 근간이 흔들리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과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조선산업 고용위기 극복’,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 등 집행부(전남도·전남도교육청)의 핵심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목표와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협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계 도입 등을 통해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정기적인 의원총회로 전제의원 및 교섭단체별로 소통의 장을 만들고 대화와 타협으로 책임의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명규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제10대 후반기 도의회는 정치적 대표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권한을 부여한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안철수, 팽목항 찾아 세월호 유가족 만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비공개로 호남을 찾았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국가와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고 본인의 초심을 다잡기 위해 팽목항에 다녀왔다”라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팽목항에 약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유가족 및 자원봉사자들과 20~30분가량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또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각오를 다지는 내용의 편지를 팽목항에 설치된 ‘하늘나라 우체통’에 남기고 왔다고 한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정치적 동지’인 김성식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호남 출신 중진의 주승용 의원에 큰 표 차로 패배한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고 연말·연시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침묵을 지켜 관심이 쏠렸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제가 알기로는 안 전 대표가 연말·연시에 부단히 여러 사람을 만났다”며 “침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안 전 대표가 항상 자기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보다도 야당의 뿌리인 호남의 지지를 받는 흠배 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게도 그걸 강조했다”며 “당내 의원들이 ‘호남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장에 정동영 의원

노회관 전남대 명예교수 고문

국민의당은 4일 당내에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4선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노회관 전남대 명예교수를 당의 고문으로 위촉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국가대개혁위원회를 통해 적폐청산, 개헌, 개혁, 민생을 위해 나아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노 고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로서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개혁위원장을 맡게 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호남 중심당은 우리당의 자랑스러운 이름”이라며 “호남의 지지가 약화하는 것이 걱정할 일이지 호남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는다는 것은 자랑스럽고도 명예로운 일

이다. 앞으로 당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김광수 사무총장이 전북 도당위원장 선거,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각각 해당 직을 사퇴함에 따라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기동동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에 고연호 대변인이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또 ▲양영두 통일위원장 ▲박태광 대학생위원장 ▲정대선 대외협력위원 부위원장 ▲김희찬 사회경제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환 교육연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박채순 국제교류특별위원장 ▲정재구 체육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신원호 벤처특별위원장 ▲공영민·정중순 지방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하철 언론특별위원장 ▲이승호 언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보건특별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전도시 정착 ... 광주시 2만개 시설물 진단

화재·교통사고·자살 등 사망자

16%까지 줄이는 ‘감축 목표제’

광주시가 2만여 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하는 등 올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로서의 위상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평가에서 2015년 대비 안전지수 개선율 1위, 안전지수 등급 2위를 차지했고 2016년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안전지수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화재, 교통사고, 자살, 갑염병 등 주요 안전 4개 분야의 사망자를 16%(100여명)까지 줄이는 사망자 감축 목표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 기관과 시민 대표

등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안전문화 의식개혁 365 생활화 운동’(안전수칙, 안전사고,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관찰단, 빛고을지킴이,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신고 정신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 남구 월산동 일대 신호·과속카메라 4대, 횡단보도 LED 투광등 8곳, 고효율 보안등 120곳, 미끄럼 방지 포장 4곳 등 총 24개 사업으로 광주시의 톨모델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 활동을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2만여 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온열뜸, 아큐빔,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